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 現군수 對 前군수 리턴 매치

## 진도군수

진도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인 이동진 후보와 전직 군수인 박연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다.

두 후보는 민선 4기에 한차례 격돌, 박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리턴매치 성격도 있어 지역 민심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진도군의 유권자가 2만8000명에 불과, 조직 선거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섬 지역 특성상 지지 후보가 뚜렷, 그동안 과열된 선거 양상을 보여 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4년 보궐 선거 이후, 진도군수는 '연임'이 없었던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전체적인 판세는 현직 프리미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은 이 후보가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와는 달리 별다른 과외가 없었던 민선 5기에 대한 평가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후보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군수, 한 번 더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감안, 과열된 선거전보다는 그동안 민선 5기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진심은 통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토대로 묵묵히 선거를 치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뚜렷한 성과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 진도군 전반에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박연수 후보의 추격전도 뜨겁다. 과거 군수를 지내며 구축했던 지지 기

반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분루를 삼킨 김희수 후보의 조직이 박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14일 실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100% 국민여론조사 후보 경선 결과, 김희수 예비 후보는 47.68%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치면서 52.32%를 얻은 이동진 예비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두 후보의 '연대'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근거다.

또한, 진도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

## 진도군수 후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이름	이동진(68)	박연수(65)
경력	진도군수	전 진도군수
주요 공약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건설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창출 ·민속·문화·예술 육성 및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	·소득이 안정된 농·수산물 기반 구축 ·지역 현안 사업의 조기 착수 ·관광·문화·예술 접목한 국제적 관광지 육성

## 유권자 적고 섬 많아 조직 선거 취약 '과열 양상'

## 경선 탈락 김희수 지지표 향방·세월호 표심 변수

성하고 있는 박씨와 꺾여 문중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집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진도군의 현실을 보여 백의중군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출마했다"며 "이미 판세는 요동치고 있으며 선거 막판, 역전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민선 4기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수수로 입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다. 박 후보는 백의중군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출마했다는 입장이지만 유권자들의 눈길은 그다지 지지 않는다.

한편, 두 후보의 공약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동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주요공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건설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창출 ▲민속, 문화, 예술 육성 및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 ▲지역개발 촉진 프로젝트 △생활밀착 복지

의료혜택 등을 내놨다.

하지만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창출, 관광객 500만 시대 개막 등의 공약은 단기 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박연수 무소속 후보는 '3대가 함께 사는 진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소득이 안정된 농·수산물 기반 구축 ▲지역 현안 사업의 조기 착수 ▲관광, 문화, 예술 접목한 국제적 관광지 육성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지역 교육시설 확충 및 인재 발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후보의 공약은 훌륭하고 다양하지만 진도의 미래를 견인할 '그랜드 디자인' 측면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끝>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장 일 후보 무투표 당선 "해양·수산 인프라 늘리겠다"

### 도의원

진도군 전남도의원 선거는 맥 빠진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단 한 곳의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장일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재선 전남도의원 출신의 장 후보는 애초 군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눈높이를 낮춘 결

과, 전남도의회에 무혈입성하게 됐다.

장 후보는 "진도는 그동안 농업 중심의 산업을 유지하다보니 완도 등지에 비해 발전이 더딘 곳이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 인프라를 늘리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특용작물 등 농업이 살 수 있는 길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 진도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진도군선거구	정일 (67·전·전남도의원)

※민=새정치민주연합  
위해 ▲바다목장화 사업 ▲해삼전복생산기지 및 수출전략기지 구축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 올 완도 다시마 생산량 작년보다 20% 줄 듯

이상수온으로 업체 탈락 많아

품질 양호·가격은 오를 듯

올해 완도지역 다시마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지역은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곳이다.

28일 완도군과 완도 금일수협에 따르면 올해 다시마 업체는 3m 이상 자라고 전년보다 선택(품질을 나타내는 운기)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포자 성장시기의 이상수온으로 인해 다시마 업체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가격은 kg당 전복 먹이용은 300원, 쌈다시마는 500~600원, 마른 다시마는 6500~75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258 어가에서 다시마 17만여t을 생산해 350억여 원의 소득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 금일수협은 다음달 2일 본점 위판장에서 완도산 마른 다시마 첫 위판을



완도지역 어민들이 최근 청정해역에서 양식한 다시마를 수확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20%줄어든 17만여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시하는 초매식(初賣式)을 열고 해양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완도 금일수협 관계자는 "지난해에 생산된 다시마 재고량이 거의 없어 다시마 수확 즉시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

상된다"며 "다시마 생산 어민들이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 효과로 다시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농협 구례교육원 농촌 일손돕기

임직원 30여명 단감 수거·잡초 제거 등 구슬땀

농협 구례교육원(원장 최익주)은 최근 구례군 문척면 중마리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구례교육원 임직원 30여명은 단감 열매 수거와 고추 지지대 설치, 잡초제거 등을 실시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단감과 고추농사를 하는 농민 정모씨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현장의

일손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익주 원장은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농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바쁜 영농철에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작은 힘이나마 농촌사랑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kwangju.co.kr

## '신비로운 한국의 소리'

장성서 생활 연주회

내달 3일 문화예술회관

장성에서 생활(笙簧) 연주회가 열린다.

장성군은 6월 3일 오후 7시 장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신비로운 한국의 소리 생활' 공연을 선보인다.

총 6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생활(笙簧)과 피아노(박경준), 첼로(강찬욱)의 선율을 주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인 '생활'은 두 가지 이상의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는 화음 악기이다.

관람료는 2000원이며, 학생과 경로자·장애인 등은 50% 할인된다. 인터넷(culture.jangseong.go.kr)과 전화(061-390-7687, 392-6230),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공연을 유치해 주민 문화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에 앞장서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광주·전남  
기능장1호

#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약하기

130만원

#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